

芭蕉와 孤山の 自然觀 比較 研究*

박복원**
japan815@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면서 | 2.1 形成 過程 |
| 1.1 問題 提起 및 目的 | 2.2 宗教的 影響 |
| 1.2 先行 研究 | 2.3 無爲自然觀의 影響 |
| 2. 芭蕉와 孤山の 自然觀 | 3. 나오면서 |

主題語: 芭蕉(Basho), 孤山(Ko san), 自然詩人(a nature poet), 自然觀(View of Nature), 尹善道(Yun Seon-do's)

1. 들어가면서

1.1 問題 提起 및 目的

바쇼(芭蕉)와 孤山은 自然을 對象으로 文藝活動을 한 自然詩人이다. 이들은 國籍, 言語, 文學 形態 등은 다르지만, 時代적으로 17世紀를 學問的 基盤으로 하고 있는 點, 短詩 文學에 큰 足跡을 남기고 漂泊과 隱居를 통해 뛰어난 詩歌를 創作한 點, 兩國을 代表하는 自然 詩人이라는 點, 中國文學과 中國思想 受用에 積極적이었던 點 등의 觀點에서 볼 때, 自然과 遊離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密着되어 있다. 그러므로 芭蕉와 孤山の 詩歌 속에 內在되어 있는 自然觀을 把握하지 않고서는 이들 文學의 本質을 理解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芭蕉와 孤山の 中心 思想인 自然觀을 把握하기 위해, 먼저 自然觀을 어떤 過程으로 形成해 가는가를 體系的으로 밝히고, 無爲自然 思想 受容 以後에는 受容한 思想을 어떻게 自身들의 文藝에 利用하여 獨自의인 作風으로 創出할 수 있었는가를 紮明하는 것이 本 論文의 研究 目的이다. 또한 自然觀을 통해 最高 詩人이 된 芭蕉와 孤山の 思想 形成 過程을 하나의

* この論文は、「2011年度国際交流基金(日本研究フェロシップ)」の支援により作成された研究論文である。

** 한국국제대학교 관광일어학과 교수

모델로 提示하여, 詩人이나 思想 研究者들에게 古人들로부터 受容한 思想이 詩人の 文藝作品 製作心理에 어떤 影響을 주고, 어떤 過程을 거쳐서 새로운 文藝로 昇華할 수 있는지를 把握하는 데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의 作成에 있어 基本資料¹⁾는 『松尾芭蕉1 (俳句編)』, 『松尾芭蕉2 (紀行·日記·俳文·連句編)』, 『國譯 孤山遺稿』, 『孤山遺稿』를 底本으로 삼았으며, 本文 引用은 이 冊들을 原則으로 한다.

1.2 先行 研究

芭蕉와 孤山에 관한 比較 研究는 아직 未備한 水準이다. 學位 論文으로는 申琬均, 서정애 등 2편²⁾이 있는데, 申琬均의 「韓日 詩歌文學에 있어서 芭蕉와 孤山の 自然觀」에서는 生涯에 대해 言及하고, 參禪을 통한 自然과 儒敎의 矛盾을 克復한 自然, 旅行과 自然의 芭蕉와, 流配와 隱遁生活로 一貫한 孤山을 對比시키고, 無爲自然 思想으로 歸結되는 影響關係에 關해 指摘하고 있으며, 서정애의 「孤山 尹善道와 마츠오 바쇼의 문학에 나타난 自然觀 比較研究」에서는 生涯와 精神의 背景의 比較, 觀念화된 自然과 變化하는 自然, 興趣와 逍遙의 空間으로서의 自然과 物心·如의 自然, 不平을 간직한 自然과 不易流行으로서의 自然을 對比하여 作品에 나타난 詩 世界에 關해 比較 說明하고 있다.

學術誌에 發表된 芭蕉와 孤山の 比較 論文도 2편이 있는데, 兪玉姬가 發表한 「孤山 尹善道와 松尾芭蕉의 自然觀의 比較研究」³⁾에서는 孤山과 芭蕉의 詩를 통해, 이들의 諧謔性에 關해 指摘하고 있고, 신은경이 發表한 「尹善道와 바쇼(芭蕉)에 끼친 杜甫의 影響에 關한 연구 - 自然觀을 중심으로 -」⁴⁾에서는 生涯, 紀行文學, 旅行의 目的과 手段에 關해 指摘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芭蕉와 孤山の 比較 研究는 이미 몇 편의 先行 研究는 있지만, 既存 研究를 檢討해보면 出典論에 根據한 研究가 주이고, 芭蕉 俳句와 孤山 詩의 內容的인 關聯性을 實證하는 段階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의 中心 思想인 自然觀을 糾明하는 研究는 아니다. 이에

1) 井本農一·堀信夫(1999)『松尾芭蕉集1』小學館

井本農一·久富哲雄·村松友次·堀切實(1999)『松尾芭蕉集2』小學館

尹善道 著, 이형태·이상원·이성호·박중우 譯(2004)『國譯 孤山遺稿』소명출판

尹善道(1992)『孤山遺稿』民族文化推進會

2) 申琬均(1993.12)「韓日 詩歌文學에 있어서 芭蕉와 孤山の 自然觀」淸州大學校 大學院

서정애(2009.8)「孤山 尹善道와 마츠오 바쇼의 문학에 나타난 自然觀 比較研究」東亞大學校 教育學院

3) 兪玉姬(1996)「孤山 尹善道와 마츠오 바쇼의 문학에 나타난 自然觀 比較研究」啓明大學校 産業經營研究所

4) 신은경(2000)「尹善道와 바쇼(芭蕉)에 끼친 杜甫의 影響에 關한 연구-自然觀을 중심으로-」韓國比較文學會

本 研究者는 芭蕉와 孤山의 比較研究에 있어 出典論을 根據로 하여 가장 核心이 되는 自然觀에 대해 糾明하려고 한다.

2. 芭蕉와 孤山의 自然觀

2.1 形成 過程

芭蕉와 孤山이 自然 속에서 精神的인 삶의 터전을 追求하면서 「無何有之郷」을 찾고, 自然을 통해서 攄得한 攝理를 詩로 노래한 것이다.

芭蕉가 本格的으로 自然을 접하게 된 것은 1680年 새로운 俳句의 方向을 摸索하기 위해 후카가와(深川)의 草庵에 隱居하게 되면서부터이다.

草庵에서 始作된 自然과의 만남은 現實 逃避處로서의 消極的이고 退步的인 것이라기보다는 文藝를 위한 積極的이고 進步的인 轉換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芭蕉가 體驗한 自然은 物的 概念이었으며, 自然을 客觀的인 対象物로 把握하였다. 이것은 芭蕉의 出発이 自然을 吟味하는 俳諧師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禪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自然을 觀照하는 視覺이 바뀌게 된다.⁵⁾

芭蕉가 살았던 江戸時代의 國家的인 宗教는 儒敎와 仏敎로 兩分되어 있었지만, 儒敎는 政治社會의 規範 原理로 權力層의 必要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封建社會의 規範에서 現實的인 立身을 피할 수 있었던 宗教的 対象은 參禪 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莊子』의 無爲自然觀의 影響 속에서 杜甫·李白·蘇東坡 등 自然을 노래한 中國詩人들에게도 心醉하게 된다.

그런데 深川의 草庵으로 옮겨 온지 2年이 되는 1682年 12月 28日 江戸에 큰 火災가 發生하여 芭蕉庵은 완전히 燒失된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1683年 6月 20日에는 故郷의 어머니가 臨終하였다는 消息을 전해 들지만, 形便이 어려워 葬禮式에조차 갈 수 없게 된다.⁶⁾ 이때부터 芭蕉는 人生의 無常함을 한층 강하게 느끼고 自然을 찾아 떠도는 삶에 自身을 依支하려는 態度를 보인다.

1684年 8月부터 1685年 4月까지 約 9個月동안 門下인 지리(千里)를 데리고 「노자라시기행(野ざらし紀行)」에 나선다. 이 紀行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追悼하기 위한 歸郷의 意味도 있지

5) 萩原羅月(1942)『芭蕉の精神』弘學社, p.24

6) 山崎藤吉(1935)『芭蕉全傳』叢文閣, p.110

만, 가장 큰 目的은 食糧도 準備하지 않고 恣然히 草庵을 나와 自然 속을 떠돌면서, 「無何有之郷」으로 들어가는 것이 人生에 있어 最高의 기쁨이라는 事實을 깨닫는 過程이었다고 할 수 있다.

1687年 8月 14日, 鹿島の 根本寺에 居住하는 佛頂和尚을 訪問하여 風流的인 仲秋明月을 感想하는 것으로 古典의 情趣를 吟味하려고 한 것이 「鹿島紀行」이다. 그리고 1687年 10月 25日, 江戸를 出發해서 東海道を 따라 올라가, 나루미(鳴海)에서 에츠진(越人)과 함께 호비(保美)에 隱居하고 있는 도코쿠(杜国)를 訪問하고, 伊勢神宮과 도호(土芳)의 새로 지은 庵子를 찾고, 吉野의 꽃과 고야산(高野山)의 自然을 感想한 後, 도쇼다이(唐招提寺) 등을 둘러보고 大阪·神戸·須磨·明石를 巡遊한 後에 京都로 돌아오기까지의 紀行이 「笈の小文」이다. 芭蕉는 西行·宗祇·雪舟·利休 등 漂泊 古人들과 自身 사이에 貫道하여 흐르는 根本精神은 같다고 吐露하면서 俳句에 몸을 두는 사람은 自然의 造化에 順應하고, 四季節의 變化를 親舊 삼아 그것을 詩歌로 表現한다고 吐露하고 있다. 보는 것 모두 꽃이 아닌 것이 없으며, 생각하는 것 모두 달이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거듭하면서 古人들의 文藝精神을 몸소 實踐하기 위해 自然 속을 떠돈 것이다.

1688年 8月 11日 「更科紀行」에 나선다. 기소 가도(木曾街道)로 떠난 이 紀行은 路上強盜나 山賊이 出現할 危險性은 있었지만, 芭蕉는 이 紀行을 통해 많은 優秀한 俳句를 創作하는 收穫을 거둔다. 1689年 3月 27日에는 「奥の細道」紀行을 떠나게 된다. 平素 芭蕉가 欽慕하던 西行의 발자취를 따라 총연장 2,340km의 大長征이었다. 持病人인 胆石症을 앓고 있던 몸으로 이 紀行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全적으로 俳句를 읊으면서 自然 속을 떠도는 熱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

「奥の細道」以後인 1694年 5月 11日부터 江戸를 出發하여, 故郷 上野와 京都 等地를 오가며 自然 속을 떠돌게 된다. 9月 8日 大阪에 있는 弟子들의 懇請으로 大阪로 가게 된다. 그러나 이 때 芭蕉의 健康은 몹시 病弱해진 狀態여서 途中에 몇 번이고 休息을 취해야만 했다고 한다.⁸⁾ 大阪에 到着한 그는 弟子들과 함께 句會를 開催하는 등, 俳句에 대한 끝없는 熱情을 보이다가, 끝내 病床上에 눕게 되고, 10月 12日 「旅に病て夢は枯野をかけ廻る」⁹⁾라는 <지세이노쿠(辞世の句)>를 남기고 永眠한다.

孤山の 境遇, 8살 때 海南 尹氏 宗孫의 承繼를 잇기 위해서 江原道 觀察使 惟幾의 아들로

7) 朴馥遠(2008) 「芭蕉의 思想 形成에 관한 研究」慶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38

8) 萩原羅月(1942) 『芭蕉의 精神』弘學社, p.280

9) 前掲書, 『松尾芭蕉集1』, p.502

(旅行中 病이 들어 꾸는 꿈속에는 마른 들판을 헤매네)

入養된 以後, 親父母의 곁을 떠나 山勢가 秀麗한 海南의 연동의 아름다운 自然 속에서 幼年期를 보내게 된다. 20살 때는 己卯土禍 以後 禁止되었던 『小學』을 學習하면서 自身이 지켜갈 生活의 規範으로 삼는다.

孤山이 31살 되던 해는 그의 人生에 일대 轉換期에 該當되는 時期이다. 禮曹判書 李爾瞻이 權勢를 잡고 權力을 마음대로 휘둘러 政局이 不安한 狀態였다. 이때 孤山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丙辰疏>를 올려 朝廷에 波紋을 일으키는데, 그는 이로 인해 慶源으로 流配를 가게 되고, 養父인 惟幾까지도 觀察使職에서 罷職 당한다. 이때 스스로 깨닫지 못함을 恨歎하며 읊은 <戲贈路傍人>을 비롯하여 <吉州途中>, <到慶題寓舍二首>, <思親舊>, <睡覺思親二首> 등의 漢詩와 <遺懷謠> 5首, <雨後謠> 1首 등 총 54首의 詩歌들을 읊게 되는데, 이것은 當時 孤山이 얼마나 自然을 依支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1628年 別試 初試에 及第하여 鳳林大君과 麟坪大君의 師父가 되었고, 戶曹佐郎, 戶曹正郎, 司僕寺 僉正을 거쳐 世子 侍講院 文學에 任命되기 까지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猜忌하는 무리들로 인해 星州縣監이라는 閑職으로 左遷을 당한다. 이에 孤山은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辭職을 하고 故郷으로 돌아가 自然에 依支하려는 態度를 보인다.

그가 歸郷한지 1年이 지나갈 즈음 丙子胡亂이 일어난다. 孤山은 나라를 걱정하며 義兵을 이끌고 배를 몰아 江華島로 향하던 中, 仁祖가 三田渡에서 淸太宗에게 降伏하였다는 消息을 접하고, 世上을 慨歎하면서 濟州道의 草野에 묻혀 살겠다고 決心하고 남쪽으로 향하던 途中, 景觀이 秀麗한 甫吉島를 發見하고, 그 곳에 定着하게 된다. 그러나 亂이 平定되자, 王을 問安하지 않고 되돌아갔다는 罪로 盈德으로 流配를 당하였다가 1年 만에 故郷으로 돌아오는데, 이 以後부터 海南 鄉里 近處에 있는 金鎖洞과 水晶洞에 隱居하여 自然에 묻혀서 10여 년 동안 <山中新曲> 18首, <山中續新曲> 2首, <贈伴琴> 1首, <初筵曲> 2首, <罷宴曲> 2首 등 不朽의 名作을 남긴다.

1649年, 한 때 自身의 가르침을 받았던 孝宗이 王으로 卽位하자 다시 出仕하게 된다. 政治的 位相은 높아졌으나 黨爭은 더욱 過激해지고, 孤山을 猜忌하는 反對派의 謀陷 때문에 繼續 官職에 머물 수 없어서 故郷으로 돌아온다. 1652년 歲暮에 海南으로 돌아와 金鎖洞에 머물고, 1653年 芙蓉洞에 들어가 世上을 등지고 亭子를 세우고 연못을 만들어 心身을 달래며 隱居의 樂을 즐긴다.

1659年에는 孝宗이 世上을 떠나고 顯宗이 卽位했을 때, 山陵 問題와 趙大妃의 服制問題의 論爭에 加擔하여 失敗하고, 또다시 咸鏡道 三水로 流配를 가게 된다. 5年間의 流配生活 後, 全羅南道 光陽으로 移配 되었다가 8年만에 顯宗의 特命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다시 海南에 돌아 왔으며, 9月에는 甫吉島 芙蓉洞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5年間 自然을 벗하며 悠悠自適

하는 삶을 살다가 1671年 6月 85살로 芙蓉洞 樂書齋에서 생을 마감한다.

以上과 같이 芭蕉와 孤山の 自然에 관한 態度는 自然造化에 따라 自然으로 돌아간다는 自然의 一部로서 自然에 順從하라는 意味이다. 이들은 自然 變化를 自然의 움직임으로 認識하고 있었기 때문에, 自然攝理에 따라 順應하는 人間의 모습이야말로 人間 本來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大自然 속에 머무는 것은 새로운 理想郷을 追求하기 위한 挑戰이며, 결코 現實에 安住하지 않는 窮極的인 삶의 目標를 志向하려는 具體的인 움직임의 標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結局 自然에 順應하면서 文藝 創作을 통해서 人間的인 矛盾과 苦惱와 같은 內面的 葛藤을 克復하였던 것이다.

2.2 宗教的 影響

芭蕉와 孤山은 時代的으로 參禪과 儒敎라는 각기 서로 다른 宗教的 土壤 속에서 固有한 自然觀은 形成하게 된다.

芭蕉는 參禪을 통해 審美的 對象으로만 보아왔던 自然에 主觀的 意識을 불어넣음으로 해서 自然과의 交感을 꾀하였고, 漂泊을 통해 自身の 俳句를 芸術로 昇華시키는 手段으로써 自然을 觀照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분명 近世를 살다간 사람이었으나, 그 精神的 背景은 仏敎의 無常觀으로 点綴된 中世에 있었고, 가장 많은 影響을 받은 사이교(西行)나 소기(宗祇)도 中世의 僧侶들이었다. 그리고 「野ざらし紀行」이나 「鹿島紀行」 때에는 半俗半僧의 모습이었고, 「奥の細道」 때에는 削髮을 하고 僧服까지 입고 다녔다.

芭蕉가 禪을 本格的으로 접하게 된 것은 1680年 郊外에 있는 深川 草庵에서 隱居生活을 始作하면서부터이며, 芭蕉에게 直接 參禪을 가르친 이는 仏頂禪師이다.

芭蕉의 俳句에서 禪的인 傾向은 參禪 以後인 「野ざらし紀行」 때부터 나타나기 始作한다. 事實 「野ざらし紀行」은 水準 높은 作品이라 할 수는 없지만, 禪 哲學의 傾向이 그 조짐을 보이기 始作하였다는 데에 그 重要性이 있다. 自然과 함께하는 生活은 大自然에 대한 感動으로 인해 人生에 대한 知慧를 더욱 豊富하게 해 주면서 詩的 靈感을 준다. 芭蕉에 있어서 自然 속을 떠도는 것이란 禪家의 傳統인 雲水行脚으로서의 意味와 自身の 文學世界의 革新을 위한 摸索方法으로서의 意味를 지니는 것이다. 陰曆 2月 초하루부터 보름간 東大寺에서 행하는 슈니에(修二會) 行事를 통해 參禪에 대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水取りや氷の僧の沓の音¹⁰⁾

위의 句는 혹심한 새벽 추위를 견디며 修二會라는 法會를 修行하는 僧侶들이 東大寺 本堂에서 佛經을 외우면서 줄을 지어 걸어가자, 나막신 소리가 얼어붙은 밤의 靜寂 속에 한층 더 크게 울려 퍼지는데, 이것은 莊嚴한 雰圍氣를 자아내고 參拜者들의 마음까지 흔든다.

芭蕉는 이 嚴肅한 禪的 雰圍氣에 젖어 興奮과 驚異로 그 行事を 바라본다. 이 行法은 딱딱하고 緊張속에서 행해지고, 또 寒氣 때문에 修行하는 僧侶들의 모습이 얼음(氷)처럼 보였다. 그래서 芭蕉는 僧侶의 모습이나 또 修二會를 행하는 東大寺 全体 분위기를 <氷の僧の音>이라 表現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仏法에 임하는 僧侶들이 精神的, 肉体的으로 얼음처럼 緊張이 되어 굳어있고, 또한 얼음처럼 透明하여 「氷」으로 象徵比喩한 것이다. 또한 自身이 體驗한 世界를 보다 生動感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象徵的인 手法을 使用했던 것이다.

芭蕉 文藝의 集大成이라 할 수 있는 「奥の細道」를 통해서 廣大無邊한 大自然을 17音節의 지극히 制限된 작은 空間속에 含蓄시켜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荒海や佐度によこたふ天河¹⁾

위의 句는 하늘(天)과 바다(海)와 섬(島)을 하나로 합쳐서 바라 볼 수 있는 雄大한 自然인 것이다. 作者가 바라보고 있는 位置는 陸地를 起點으로 하여, 佐度 섬을 멀리 바라보게 하는 것은 첫 5音節의 <荒海や>이고, 그것을 더욱 極大化한 것이 <よこたふ天河>이다. 더구나 助詞 <に>에 의해 바다가 그 보다 더 넓은 하늘을 삼켜 버린 듯한 느낌을 준다. 또 「天河(銀河水)」는 時間的으로 가을과 밤을 나타낸다. 銀河水가 物理的인 距離感과 心理的인 斷切感을 주고 있는 場所의 코드이다. 따라서 銀河水의 伝說이 絶對的인 離別의 距離를 나타내고 있고, 佐度 섬은 예로부터 罪人들의 流配地라는 歷史的인 이미지로 連結되어 斷切感을 자아낸다. 이를 통해 芭蕉는 壯大하게 하늘과 바다와 섬을 媒介로 하여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긴 旅路로 인해 心身이 피로해져 漂泊의 哀愁를 절실히 느꼈던 그는 自身과 比較하여 佐度 섬에 사는 孤獨한 사람을 생각하여, 哀愁를 表現한 것이다. 이처럼 芭蕉는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大自然과 거기에 한없이 이어지는 깊은 哀愁를 俳句라는 좁은 空間 속에 훌륭히 凝縮시켜 讀者에게 無限한 含蓄美를 주고 있다. 또한 『奥の細道』<三九段>에서도 參禪과 關聯하여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10) 前掲書, 『松尾芭蕉集1』, p.129
 (미즈토리여! 얼어붙은 정적 스님의 나막신 소리)
 11) 上掲書, pp.287-288
 (거친 바다여! 사도 섬에 가로놓인 밤하늘 은하수)

白浪のよする汀に身をはふらかし、あまのこの世をあさましよう下りて、定めなき契、日々の業因、いかにつたなしと、物云をきくきく寝入て、あした旅立に、我々にむかひて、「行衛しらぬ旅路のうさ、あまり覺束なう悲しく侍れば、見えがくれにも御跡をしたひ侍ん。衣の上の御情に大慈のめぐみをたれて結縁せさせ給へ」と、泪を落す。不便の事には侍れども、「我々は所々にてとゞまる方おほし。只人の行にまかせて行べし。神明の加護、かならず恙なかるべし」と、云捨て出つゝ、哀さしばかりやまざりけらし。

一家に遊女もねたり萩と月¹²⁾

위의 俳文에서 芭蕉가 遊女の 請을 拒絶한 것은, 이 漂泊을 떠나올 때 富士川 近處에서 버려진 아이 옆을 그대로 지나쳤을 때만큼 極的이지는 않지만, 역시 芭蕉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고, 「天」대신에 「神明」의 加護를 祈禱하고 있다. 苛酷한 각자의 人生을 단지 祈禱해 주는 것 외에 方法이 없다고 하는 佛法에 따르는 깊은 諦念이 깃들어있다. 「흐르는 여자」라고 한 浮雲無住의 處地인 僧侶와 旅行者의 덧없는 만남과 離別의 事緣이 단지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釋敎란 것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이 「奥の細道」漂泊에서 出發地인 江戸에서 大垣에 이르기까지 많은 寺院을 訪問하고, 禪과 關聯지어 俳句와 俳文으로 남긴 것이다.

이와 같이 禪을 떠나서 芭蕉의 思想과 文藝를 논할 수 없다. 변방 오지를 修道하는 마음으로 거닐고, 自身의 몸을 던져 諸行無常의 意味를 깨닫다가 설사 客死한다 해도 그것은 天命이라고 옳고 있듯이, 自然을 향한 没入을 통해 芭蕉는 끝없이 새로운 文藝 世界를 開拓해 갔으며, 禪 思想 受容을 契機로 한층 圓熟한 境地에 到達할 수 있었던 것이다.

朝鮮社會는 強力한 中央集權的 支配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旧制度의 背景을 이루었던 佛敎를 抑制함으로써 儒敎가 새로운 時代 理念으로 登場하게 된다. 그런데 儒敎가 學問的으로나 政治的으로 완전히 成熟되지 못한 狀態에서 理念 및 政策上의 對立으로 熾烈한 黨爭을 불러일으켰고, 儒敎로 치우친 無批判的인 追從은 社會 全般을 閉鎖的이고 排他的인 思考方式으로 變質시킨다.¹³⁾

12) 前掲書, 『松尾芭蕉集2』, pp.112-113

(흰 파도 밀려오는 바닷가에 몸을 내팽개쳐 어부의 자식처럼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신세, 유객의 덧없는 언약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나날들, 전생에 얼마나 죄가 많아서 일까 라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길을 떠나는 우리를 향해 그 여인들이 “길을 모르는 여로의 고통에 불안스러워 슬픈 생각이 앞섭니다. 보일 듯 말 듯 따라 가겠으니 부디 범의를 보시더라도 大慈大悲의 功德을 베풀어 동행을 허락해주시십시오”라 말하고 눈물을 흘린다. “참 안 됐습니다만 우리들은 곳곳에 들릴 곳이 많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틀림없이 神明의 加護가 있어 무사하실 것입니다.” 한 집에 유녀도 잤다네 싸리와 달처럼)

13) 李容淑(1986) 「孤山 尹善道の 詩歌 研究」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学位論文, p.35

孤山은 8살 때에 伯父인 惟幾에 入養되어 『小学』을 읽고 感銘을 받으면서 그의 儒敎의인 學問이 始作된다. 儒敎의 「禮」와 「道」를 삶의 根幹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精神世界 가운데 『小学』의 實踐의 道德觀인 比重을 짐작할 수 있다.

憂國과 젊음의 血氣로 무장한 孤山은 禮曹判書 李爾瞻의 非行을 糾彈하는 「丙辰疏」라는 上疏文을 올리게 된다. 그는 父親의 挽留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上疏文을 올렸기 때문에 忠孝意識 속에서 많은 葛藤을 겪게 되었는데, 그의 이러한 葛藤이 「丙辰疏」에도 다음과 같이 잘 描寫되어 있다.

臣父欲禁則 恐負國家 欲聽則 憫子就死 網然而坐 默然無語 逮臣之辭出也 執臣之手 弟注嗚咽 臣雖 勇決到此地頭 能不悲哉 伏願聖慈 雖置臣於重典無使延及於老父 永為天下後世 忠臣孝子之鑑戒¹⁴⁾

孤山은 愛國衷情에서 直諫하는 上疏文을 올리기는 했지만, 父親의 身邊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以後 禍가 父親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丙辰疏」때문에 父親 惟幾도 削奪官職 당한다. 그래서 孤山은 愛國하기 위해 自己 몸을 가벼이 하기는 쉬우나, 어버이 생각 때문에 슬픔을 참을 수 없다는 悲哀에 대해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清和時節雪猶殘 봄눈은 아직도 남아 있지만
誰信人間有此寒 인간세상의 이러한 추위를 누가 믿으랴
攬蒼蕪穰皆所善 난초로 엮은 띠 둘러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因山蔡服亦云安 귀양살이 옷차림 또한 편안한 데가 있다.
只緣愛國輕身易 애국 위해 몸 가벼이 하기는 쉬우나
終為思親忍淚難 어버이 생각 때문에 그 눈물 참기 어렵네
渺渺飛鴻斜日外 아득히 날아가는 석양 밖의 기러기
鎮胡樓上依欄干 鎮胡樓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본다.¹⁵⁾

위의 詩는 忠을 세우려고 正當한 改革의 意志를 밝힌 目的의 「丙辰疏」를 올린 以後, 李爾瞻

14) 尹善道(1992)『孤山遺稿』民族文化推進會, p.292
(신의 아버지는 금하러 한즉 국가를 저버릴까 두렵고, 들으려 한즉 그 아들이 죽음으로 나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멍하니 앉았고 묵묵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신의 말이 나옴에 신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목이 메었으니 신이 비록 용감하게 결단하여 여기에 이르렀지만, 능히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비오니 성스럽고 자비스러운 왕께서는 신을 무거운 벌로 다스리시되 늙은 아버지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면 영원히 천하 후세에 충신효자의 귀감이 될 것이옵니다.)
15) 前掲書, 『國譯 孤山遺稿』, p.94

勢力으로부터 되물리어 그 災殃이 養父에게까지 미치고, 自身은 咸鏡道 慶源에서 流配生活을 하면서 人間的인 苦惱와 冷酷한 現實 앞에서 참잡한 心境을 吐露하는 가운데 忠孝思想을 表出하고 있다.

앞장에서는 流配地의 추위에 대해서 事實的으로 描寫하고 있는데, 귀양살이의 고달픔으로 인해 孤山의 마음이 더욱 더 切實한 괴로움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忠孝의 意識이 변함이 없음을 理解할 수 있다.

經濟真成坎下離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진실로 이루어졌고
 目生青壁錦紋滋 파란 눈에서 나는 광채가 아름다워라
 悲歌不起榮兼辱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은 영욕에서 일어나지 않나니
 去駐那關速與遲 가고 머무는데 어찌 빠르고 더딤을 관계하라
 惟願襄區王火復 오직 원하노니 이 세상에 왕의 교화가 회복되기를
 每愁百感由中集 문득 온갖 감정이 가슴속으로부터 모여드니
 老子蒼茫獨立時 이때는 바로 늙은이가 아련히 홀로 섰을 때다¹⁶⁾

위의 詩는 孝宗이 登極한지 3년째 되는 1652年 作品으로, 孝宗의 特別한 부름을 받은 孤山은 經世濟民의 理想을 마음껏 펼쳐보려고 試圖한다. 이 作品을 통하여 孤山의 儒敎的 政治觀이 잘 表出되어 있는 것을 把握할 수 있다.

孤山은 自身의 個人的인 榮達보다는 百姓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런 上疏를 올린 것이다. 百姓이 나라의 根本이니, 根本이 堅固하면 나라가 安寧하다는 民本思想이 그의 意識 속에 潜在해 있었던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儒學者들의 理想인 내 몸을 닦아 남을 敎化한다는 修己治人의 道를 몸소 實踐해 본 것이다. 이러한 經世濟民 意識은 政治人의 根本인 敎化善政을 強調하게 된다. 오로지 이 世上에 王의 敎化가 다시 回復 되기를 바라면서 天下의 모든 百姓들이 疲困하게 될까를 恒常 근심한다. 따라서 이 作品은 儒家의 政治 哲學인 經世濟民과 敎化善政을 強調하여 牧民官으로서의 孤山을 再認識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주게 된다.

1667年 光陽에서 풀려나 孤山은 歸鄉하는데 當時의 忠誠心 가득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三公不換此仙山 삼공 벼슬도 이 선산과는 아니 바꾸리
 遷謫惟愁去此間 귀양살이에든 이곳 떠나 있음을 근심했는데

16) 前掲書, 『國譯 孤山遺稿』, p.219

蒙被降恩來故里 滄桑한 은혜입어 고향에 왔으니
不希官祿烹生還 벼슬은 바람 것이 없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노라¹⁷⁾

위의 詩는 中國 송나라 載石屏의 詩를 引用하고 있지만, 儒學者로서의 忠 思想이 잘 表出되어 있다. 孤山은 20年 가까운 流配生活로 世俗的인 일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狀態인데도, 임금에 대한 怨望은커녕 오히려 이렇게 건강히 살아 숨 쉰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며, 이 모든 것을 임금의 恩惠로 생각하고 感謝하고 있다. 이는 徹底한 儒教 思想을 잘 反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버이 그릴줄을 처음부터 아란마는
남군 向흔뜰도 하늘히 삼겨시니
진실로 남군을 니즈면 그 불효인가 너기좌¹⁸⁾

위의 時調는 忠孝一致의 葛藤에서 몸부림치는 孤山の 괴로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으며, 儒敎의 矛盾을 表現한 唯一한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忠孝一致를 요하는 儒敎의 矛盾的 思想이 그에게 兩者攄一의 悲哀를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그는 儒學者의 道를 벗어나지 않는 範圍 내에서 忠과 孝의 個別的 思想에 接近하려 했던 것이다. 儒家的 立場에서 孤山을 본다면 그의 自然과 의 만남은 現實에서 물러나는 것 그 自体에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孤山은 典型的인 儒學者로서 王權強化의 政治 一邊倒를 固執하지만 「丙辰疏」의 代價는 父母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그는 流配地에서 忠孝一致란 儒敎의 矛盾된 思想을 克服하기 위하여 自然을 忠과 孝에 個別的으로 代置시킨다. 卽 道의 對象으로서 自然을 把握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道의 對象으로 把握된 自然은 儒敎의 矛盾 속에서도 儒學者의 道를 지키고자 하는 自己救濟의 意味로 解釋되고 있음을 把握할 수 있었다.

2.3 無爲自然觀의 影響

芭蕉와 孤山은 私意를 버리고 自然에 歸一하여 自然과 一體化하는 無爲自然 思想을 自身들이 窮極의 追求하는 價值觀으로 受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自然을 中心으로 하는 『莊子』의 無爲自然 思想은 芭蕉가 안고 있던 虛飾과 形式을 벗어버리

17) 前掲書, 『國譯 孤山遺稿』, p.266

18) 上掲書, p.337

고 人間 本然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이다. 自身의 生活에서 벗어나기 위해 『莊子』를 접한 것이고, 『莊子』를 통해서 遭遇한 自然의 모든 것이 새로운 人生 經驗의 連續이었던 것이며, 그러한 環境은 芭蕉의 詩歌에 큰 變化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또한 芭蕉는 俳句를 통해서 無爲自然의 情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牡丹藥深く分出る蜂の名残かな¹⁹⁾

위의 句는 1642年 여름, 「野ざらし紀行」途中 熱田의 도요(桐葉) 집에서 묵고, 江戸로 떠나가면서 읊은 作品이다. 芭蕉의 弟子이며 旅館의 主人이기도 한 도요는 이때 芭蕉를 따뜻하게 接待하게 된다. 句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芭蕉는 도요의 善意에 깊이 感謝하면서, 모란 꽃술 깊숙이 헤집고 단 꿀 빨다 떠나는 벌의 아쉬움을 통해 親舊들과 헤어져 또 다른 自然을 찾아 떠나는 自身을 發見한 것이다.

句의 內容을 살펴보면, 먼저 素材에 있어 昆蟲과 植物인 「벌」과 「꽃」이다. 表現手法에 있어서도 「物」을 精密하게 描寫하는 手法과, 自然物을 그 微細한 部分까지 細密하게 지켜보는 點, 細密한 部分까지 緻密한 言語로 表現하는 點, 「蜂·花」에 의해 大自然인 萬物을 象徴적으로 表現하는 點이다. 그리고 發想形式에 있어서 自然物의 生態 描寫를 통해서 無爲自然을 表現하고자 한다. 벌은 芭蕉 自身으로, 牡丹은 自身을 보살펴준 도요를 指稱한 것으로, 먼저 牡丹이 눈에 들어오고, 그 花藥에서 벌이 나오는 것을 보고, 「分出る」와 「名残」란 用語로, 벌이 牡丹과 惜別하는 場面을 描寫한다. 芭蕉는 無爲自然뿐만 아니라, 萬物이 서로 依支하면서 生存하는 것까지도 表現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獨特한 詩情을 創出한 것은 芭蕉의 새로운 展開라 할 수 있다.

「一枝軒」에서도 『莊子』 <逍遙遊>篇의 「鷦鷯巢深林不過一枝, 偃鼠飲河不過滿腹」을 다음과 같이 受容하고 있다.

良医玄随子は三度肘を折て、家を医し国を医す。其居を名付て一枝軒といふ。是彼桂林の一枝の花にもあらず、微笑一枝の花にも寄らず。南花真人の所謂一巢一枝の樂み、偃鼠が腹をたたいて無何有の郷に遊び、愚盲の邪熱をさまし、僻智小見の病を治せん事を願ふならん。世に句ひ梅花一枝のみそさざい。 20)

19) 前掲書, 『松尾芭蕉2』, p.32

(모란 꽃술 깊숙이 헤집고 단 꿀 빨다 떠나는 벌의 아쉬움)

20) 上掲書, p.192

(훌륭한 醫師인 玄隨는, 오랜 經驗을 쌓은 名醫가 되고, 집의 病, 나라의 病까지도 고칠 수 있을 정도이다.)

위의 俳文은 1685年 봄 作品으로 自身の 生活에 満足해서 많은 것을 탐내지 않고, 無爲自然의 理想郷에 마음을 놓게 하고, 道理를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생각에서 비롯된 마음의 病까지 고쳐준다는 醫師 아카시 겐즈이(明石玄隨)의 自得·自適에 대해 稱讚하고 있다. 芭蕉가 自得·自適의 境地에 있는 사람을 稱頌하는 것은 스스로도 自得·自適의 境地를 통해서 無爲自然 思想에 沒入하고 싶다는 意志를 表出한 것이다.

よく見れば薺花さくかき根かな²¹⁾

위의 句는 1686年 作品으로 울타리 近郊 雜草 사이에 홀연하게 있는 냉이 꽃을 発見하고는, 그 驚歎과 기쁨의 感動을 表現하고 있다. 냉이 꽃의 姿態가 芭蕉 앞에 있고, 芭蕉 또한 그 꽃 앞에 存在하고 있는 造化의 眞實에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볼품없는 냉이 꽃에서, 美를 発見하였다는 것은 냉이 꽃의 本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よく見れば」라는 것은 깊이 凝視하는 것으로, 깊이 凝視함에 따라 거기에서 造化의 힘을 発見하게 되고, 生命의 神秘를 感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造化라는 말은 「物皆 自得」이라는 말보다 한층 發展한 段階라 할 수 있겠다. 造化에 대한 그의 생각은 『笈の小文』에 잘 表現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自然과 事物의 本性이며 原理인 造化를 따르고 自我를 버린다면 어떠한 對象도 꽃이요,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俳句에 있어서 重要な 것은 바로 造化를 따르고 造化에 帰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이 芭蕉는 『莊子』의 無爲自然 思想을 통하여 自然의 概念을 새롭게 認識하고 있다. 즉 人間을 包含한 모든 自然物을 同等한 狀態에서 바라봄으로서 自我를 버리고, 大自然의 理致에 順應하는 것이 自然이라고 認識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勿論, 參禪과 漂泊을 통하여 自然에 主觀的 意識을 附與함으로서 自然과의 交感을 꾀하였고, 그 自然이 俳諧의 藝術的 昇華의 媒介體로 反映되었으므로 自然의 概念에 새로운 意味를 附與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居住를 「一枝軒」이라고 하는 것은 게키신(却詭)이 登用試驗에서 一位를 하고도 「桂林의 가지 하나를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그런 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석가모니가 연꽃을 간단히 다루려고 하자, 즉시 그 마음을 깨닫고, 迦葉이 빙곳이 웃었다는 隱化미소를 통해서 자신의 崇高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莊子가 말한 「굴뚝새는 깊은 숲에 둥지를 만들지만, 작은 가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 一巢一枝의 즐거움을 나타낸 것이다. 玄隨는 『莊子』의 「시공창의 쥐가 큰 강에서 물을 마셔도 자신의 배 가득되면 만족한다」고 했듯이, 이 生活에 満足해서 많은 것을 탐내지 않고, 無爲自然의 理想郷에 마음을 놓게 하고, 어리석게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부정한 熱을 깨우쳐주고, 지식이나 작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病을 고쳐준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自身の 分수를 알고 매화꽃 한 가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21) 前掲書, 『松尾芭蕉集1』, p.143

(유심히 바라보니 냉이 꽃 피어있는 울타리구나.)

그러나 그 自然은 客觀的 對象物에서의 脫 自然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結局 芭蕉에 있어서 自然은, 無爲自然 思想에 이르러서야 大自然의 理致인 造化에 順應하는 것으로 認識되었고, 그러한 造化를 통하여 自我를 發見하게 해주었던 것 또한, 自然이 주는 새로운 意味라고 생각된다.

『孤山遺稿』에는 『老子』와 『莊子』를 一切 排斥했다는 「老莊之書一切斥去」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反對로 생각해보면, 孤山은 단순히 自然을 아름다움의 對象으로 보고 즐긴 것이 아니라 自然 속으로 들어가 自然과 同化되어 완전히 沒入하는 物我一體가 되었고,²²⁾ 그것에 그치지 않고 自然을 觀念化시켜 人間的 意志와 倫理的 價値를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孤山은 自然詩人으로서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優秀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暗澹한 社會的 狀況 속에서 孤山이 찾아낸 甫吉島나 金鎖洞의 風光은 純粹한 自然의 世界로 精神的 故鄉을 잃은 疲弊한 靈魂의 安息處가 되기도 했고, 救濟處가 되기도 하였다. 孤山은 自然과의 宛然한 合一의 境地로 人間과 自然을 區別할 수 없는 境地를 表現한 無爲自然 思想에 대해서 <山中新曲>에서도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²³⁾

위의 詩는 모든 是非와 分別을 넘어서서 먼 山과 一體를 이루는 境地에 이르니 무어라고 形言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으며, 聯想 概念의 思考는 조금도 없다. 그저 그윽하고 平穩한 自然感情뿐이다. 山中에 홀로 앉아 술잔을 들고 멀리 바라보는 산의 아름다움을 술안주로 해서 自然에 陶醉되어서 自然과 一體가 되는 그윽한 感情을 效果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얼마나 自然에 沒入하여 먼 산의 경치가 좋으면 사랑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 좋다고 하겠는가. 孤山은 自然이 그리운 님보다 더 정답다는 認識을 통해서 自然 속에 完全 同化되어 物我一體가 된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自然의 佳景에 陶醉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는 술잔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自然과 하나가 되어 沈潛의 境地에 들어가므로 해서 그는 分明 自然을 그 누구보다도 높고 깊게 理解했고 自然에 同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孤山은 現實로부터 脫皮하여 人間과의 만남도 回避하려는 傾向을 보인다. 혼자 앉아서 술을 먹고 있을 때 뜻밖에 그리워하던 님이 찾아온다면 그 반가움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던 님보다도 아무런

22) 趙潤濟(1976)『韓國文學史』探究堂, p.230

23) 前掲書, 『國譯 孤山遺稿』, p.313

感情도 없는 自然이 좋다고 한 것이다. 세상살이에 지치거나 그것과 對決하기를 忌避하는 사람은 산이나 숲 바다 등 自然을 찾게 마련이다. 現實에서 挫折을 맞본 孤山에게 負擔 없이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自然이었다. 긴긴 歲月을 挫折 속에서 살아온 孤山에게 포근한 安息處로서의 自然은 人間的인 것으로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 그는 自然과 同化함과 아울러 自然을 擬人化하여 生命을 移入시켰던 것이다. 1638年 作品인 <用前韻 戲作遊仙辭求和>에서도 無爲自然 思想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茅茨付與水雲衛 띠풀 집은 수운의 보호에 맡기고
 窩構任從乾坤惠 현미는 건곤의 은혜에 맡겨두네
 晝傾玄酒鼓箕操 낮이면 현주 기울이며 기산의 절조 연주하고
 夜照松明看孔繫 밤이면 솔불 켜고 공자의 계사를 본다오
 身肥漸覺夫子勝 몸이 기름지니 점차로 夫子가 이길 줄 알겠고
 手熱敢近丞相勢 손이 데여도 감히 승상의 勢에 가까이 하네
 蘇翁已辨紫翠居 소동파는 이미 紫翠의 거처를 마련했는데
 杜老休嗟白日蔽 두보는 하릴없이 白日의 가림을 탄식하였지
 滄玉未必藍田山 옥밥 짓는데 藍田山 일 필요는 없지만
 鍊丹應學參同契 단약을 달이려면 응당 參同契를 배워야지
 月窟倘有天後先 月窟에서 혹여 하늘의 선후를 깨다한다면
 金鼎何難火次第 金鼎에 불 때는 순서야 무엇이 어려우리
 閩風玄圃高不極 閩風과 玄圃는 드높아 다하지 않고
 蓬海瀛洲無際渺 蓬海와 瀛洲는 아득하여 끝이 없구나
 來歸肯效華表翎 돌아가며 기꺼이 화표주 학을 본받으며
 遠遊下笑高陽裔 멀리 노닐며 高陽의 후예를 비웃노라
 經營遮莫地上友 경영함에 지상의 벗이야 상관할 것 있으며
 翻覆不管人間世 번복함에 인간 세상이야 관계할 것 있으라
 金支翠旗眞氣濃 금빛 가지와 푸른 기는 眞氣가 짙고
 鳳笙龍管蘭音脆 봉황 생황과 용 피리는 난음이 가볍네²⁴⁾

위의 詩에서 孤山은 물과 구름 속에서 띠로 이은 집에 살고, 거칠지만 自然에서 採取한 食物 그대로 먹고 산다. 낮에는 술이나 기울이며 기산의 절조를 演奏하고 밤에는 관솔밭 옆에서 周易을 읽는 生活은 그 自體가 하나의 無爲自然인 것이다. 그래서 自身은 丞相 氣勢도

24) 前掲書, 『國譯 孤山遺稿』, pp.157-158

부럽지 않다고 한 것이다. 또한 自己 自身을 蘇東坡와 杜甫에 比喩한 것도 特別하다. 蘇東坡는 政치가 아름다운 黃州에다 雪堂을 짓고 살았고, 杜甫는 奸臣들이 임금의 聰明함을 가리고 있다고 慨嘆한 作品이 많다. 이들을 떠올리며 自身도 蘇東坡나 杜甫에게 결코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읊은 것이다.

또한 閩風·玄圃·蓬海·瀛洲 등은 모두 神仙들이 사는 곳이다. <華表翎>은 遼東 사람 丁令威가 神仙이 되어 鶴을 타고서 千年 만에 遼東으로 돌아와 보니, 그 옛날 故鄉 사람들은 모두 죽고 華表柱만 남았다는 傳說을 引用하고 있다. 神仙이 되지 못한 高陽의 後孫 屈原을 비웃는다는 內容이다. 孤山도 屈原을 비웃을 程度로 自己 自身이 神仙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地上의 벗들과는 關係하지 않고, 人間 世上에 대하여 相關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表明한 것이다.

1642年 作品인 <五友歌>에서도 無爲自然 思想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내 벗이 몇이냐 하니 水石과 松竹이라
 동산에 달(月)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야 무엇하리²⁵⁾

위의 詩는 自然 속에 살고 있는 作家 自身の 自然 親和와 觀照에 대한 率直한 描寫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물(水)·돌(石)·소나무(松)·대나무(竹)·달(月)에 內在하고 있는 美的인 固有 價値를 찾아 낸 것이다. 쉼 없이 흐르는 물에서는 不斷을, 萬古에 변함없는 바위에서는 不變을, 눈서리를 개의치 않는 소나무에서는 不屈의 意志를,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에서는 無慾과 높은 節概를, 말없이 밝게 비취는 달에서는 寡黙을 취해 修身의 通路로 삼고 있다. 곧 孤山은 自然에서 發見한 外形的인 것을 內面으로 擴散시켜 이를 人格의 昇華로 擴散시키면서 修身의 通路의 廣場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修身의 通路는 自然에 대한 愛情이 깊은데서 우리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人間의 挫折을 짊어지고 現實과 對決하지 못하는 孤山은 自然을 觀念化함으로써 挫折을 풀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觀念은 無爲의 世界를 말하는 것이다.

孤山은 儒者였기에 느꼈던 人間의 挫折意識을 衝突과 矛盾이 없는 絶對的인 自由가 許容되는 無爲自然 思想을 觀念化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自然을 대하여 一景一物을 모두 觀念으로 把握하여 生의 挫折과 煩惱를 <五友歌>에 登場하는 水·石·松·竹·月의 五友를 修身의 標本으로 삼음으로써 달랠 수 있었다.

25) 前掲書, 『國譯 孤山遺稿』, p.315

이와 같이 孤山에게 있어서 『莊子』의 無爲自然 思想은 그가 처해진 立場에서 주어진 唯一한 自由였으며 理想郷이었다고 할 수 있다. 結局 孤山은 衝突과 矛盾이 없는 絶對的인 自由가 許容되는 自然을, 人間을 包容하는 無爲로 觀念함으로서, 客觀的 對象으로서의 自然의 概念에서 완전히 脫皮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곧 無爲로 觀念화된 自然은 得道의 概念으로 把握하고, 그러한 自然을 自己 自身을 深化시키는 意味로 受用하고 있는 것을 把握할 수 있다.

3. 나오면서

近世에 있어서 韓日 兩國의 獨自的인 短詩文學을 定立한 芭蕉와 孤山은 自然을 어떻게 접하고, 自然을 어떤 概念으로 把握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芭蕉는 같은 趣向을 反復해서 斬新함을 喪失한 談林俳諧에 限界를 認識하면서 都市的 享樂主義에 의한 卑俗的인 俳諧에 無意味함을 깨닫고 隱者의 길을 택하게 된다. 孤山은 나라를 사랑하는 忠心 하나로 奸臣輩들의 橫暴를 陳情하는 「丙辰疏」를 올렸다가 咸鏡道 慶源으로 流配를 당하고, 더구나 養父인 惟幾까지도 觀察使職에서 罷職 당하게 된다. 이처럼 芭蕉는 自意에 의해 自然을 접하게 되고, 孤山은 他意에 의해 自然과 遭遇하게 된다. 이러한 두 詩人이 各其 다른 立場에서 취한 自然은, 그들이 취한 宗教의 思想的 影響에 의하여 그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

芭蕉는 深川 草庵에서의 生活은 매우 簡潔하였으며, 또한 町人社會가 지나치게 功利主義인 데 抵抗을 느끼고, 俳諧를 純粹한 詩精神 위에 構築하려고 努力한다. 그리고 長慶寺의 佛頂和尙에게 禪을 배우게 된다. 孤山의 경우는 典型的인 儒學者로서 王權強化의 政治를 固執하지만, 「丙辰疏」 때문에 그 禍가 父母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忠孝가 一致하지 않는 儒教 思想의 矛盾을 克服하기 위하여 道의 對象으로서 自然에 歸一하려는 態度를 보인다.

이렇게 두 詩人에 의해 各各 參禪과 儒教의 矛盾을 통해 把握한 自然은, 그들의 直·間接 體驗에 의해 自然에 대한 새로운 概念으로 定立하게 된다.

芭蕉는 參禪을 통하여 自身이 自然의 一部分을 깨닫고 俳諧 新風을 찾아서 自然 속을 떠돌게 된다. 그는 여러 차례의 漂泊을 통하여 無爲自然 思想에 順應하여 새로운 概念을 定立하게 된다. 孤山은 半平生의 流配와 隱遁生活을 통하여 접한 自然을 통해 自我를 찾기 위하여 努力하게 된다. 그는 出仕, 流配, 隱遁生活의 反復 속에서 自然을 自我의 概念으로 把握하게 되고, 結局 그의 裏面에 內在해 있던 無爲自然 思想을 體驗함으로 해서 得道하게 된다.

이렇게 芭蕉와 孤山은 自然의 새로운 概念을 定立하기까지의 時代的 背景과 身分, 宗教 등은 서로 다르지만, 無爲自然 思想에 沒入해 가는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文永午(2001)『孤山文學詳論』태학사
_____(1983)『孤山尹善道研究』太學社
신영훈(1999)『윤선도와 보길도』조선일보사
尹善道 著, 이형태·이상원·이성호·박중우 譯(2004)『國譯 孤山遺稿』소명출판
尹善道(1992) 韓國文集叢刊 91, 『孤山遺稿』卷二, 民族文化推進黨
정운채(1995)『윤선도 연군지정과 이념의 시세계』건국대학교 출판부
趙潤濟(1976)『韓國文學史』探究堂
井本農一·堀信夫(1999)『松尾芭蕉集1』小學館
井本農一·久富哲雄·村松友次·堀切實(1999)『松尾芭蕉集2』小學館
萩原羅月(1942)『芭蕉の精神』弘學社
山崎藤吉(1935)『芭蕉全傳』叢文閣
朴馥遠(2008)『芭蕉의 思想 形成에 관한 研究』慶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申琬均(1993)『韓日 詩歌文學에 있어서 芭蕉와 孤山의 自然觀』淸州大學校 大學院
서정애(2009)『孤山 尹善道와 마츠오 바쇼의 문학에 나타난 自然觀 比較研究』東亞大學校 教育大學院
신은경(2000)『尹善道와 바쇼(芭蕉)에 끼친 杜甫의 影響에 관한 연구-自然觀을 중심으로-』韓國比較文學會
俞玉姬(1996)『孤山 尹善道와 마츠오 바쇼의 문학에 나타난 自然觀 比較研究』啓明大學校 產業經營研究所
李容淑(1986)『孤山 尹善道の 詩歌 研究』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논문투고일 : 2014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19일

<要旨>

芭蕉와 孤山の 自然觀 比較 研究

本 研究는 近世에 있어서 各々 韓·日 兩國의 獨自의인 短詩 文學의 形態를 定立한 芭蕉와 孤山의 俳句와 時調에 나타나는 自然觀을 比較한 것이다.

芭蕉는 深川 草庵에서의 生活은 매우 簡潔하였으며, 또한 町人社會가 지나치게 功利主義인데 抵抗을 느끼고, 俳諧를 純粹한 詩精神 위에 構築하려고 努力한다. 그리고 佛頂和尚에게 禪을 배우게 된다. 孤山은 典型的인 儒學者로서 王權強化의 政治를 固執하지만, 「丙辰疏」 때문에 그 禍가 父母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忠孝가 一致하지 않는 儒敎 思想의 矛盾을 克服하기 위하여 道의 對象으로서 自然에 歸一하려고 한다.

이렇게 芭蕉는 參禪을 통하여 自身이 自然의 一部임을 깨닫고 俳諧 新風을 찾아서 自然 속을 떠돌면서 無爲自然 思想에 順應하여 새로운 概念을 定立하게 된다. 孤山은 半平生의 流配와 隱遁生活을 통하여 접한 自然을 통해 自我를 찾기 위하여 努力하게 된다. 그는 出仕, 流配, 隱遁生活의 反復 속에서 自然을 自我의 概念으로 把握하게 되고, 結局 그의 裏面에 內在해 있던 無爲自然 思想을 體驗함으로 해서 得道하게 된다.

A comparative Study on a View of Nature of Basho and Kosan

This study compared a view of nature appearing in Sijo and line of Kosan and Basho that established unique short-poetry of both countries (Korea and Japan) in modern time.

On life of a depth and hermitage, Basho is very concise. But, chonin society is on utilitarianism excessively. So, he is oppositional and make an effort to forge Haikai on the sheer soul of poetry.

On this, Basho realize that he is a part of nature from worship. and then he wander in the nature to find new style of Haikai. He establish new concept adapting himself to idle nature on the several rove.

Kosan tries to find ego on nature experience through exile and hermitry of half life.

He think of nature as concept of ego in repetition of exile and hermitry. and then finally he achieve spiritual enlightenment by experiencing idle nature inherent in his hidden side.